

문화관광 인사이트

Culture & Tourism INSIGHT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문화·관광 **인사이트**

제 146호 (2020. 7. 9)

담당부서 | 경영기획본부 기획조정실

TEL | 02)2669-6987

집필자 | 양혜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연구실 연구위원

dreamer75@kcti.re.kr/02-2669-6910

※ 본 간행물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

코로나19가 문화예술분야에 미친 영향과 향후 과제

1. 들어가며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COVID-19)의 세계적인 대유행(Pandemic)은 사회·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왔다. 지속되는 이동제한으로 인한 소비·서비스 생산의 급감, 교역 감소 등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4.9%로 전망했다(IMF, 2020). 국제노동기구(ILO)는 올해 1/4분기에 1억 55백만개의 일자리가, 2/4분기에 4억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했다(ILO, 2020).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는 일하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 학습방식, 살아가는 방식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문화예술분야 또한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는 직접적 대면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는 문화예술의 창작, 제작, 유통, 소비, 향유 등 문화예술생태계의 가치사슬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봉쇄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방역지침은 문화시설의 휴관, 공연·전시·축제 등의 취소로 이어져 문화예술활동의 중단과 심대한 위축을 가져왔다.

문화예술활동의 위축은 가뜰이나 열악한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들의 경제적 지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프리랜서, 계약직 노동자, 파트타임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예술인들은 소득감소를 넘어 생존의 위

협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전례없는 위기상황에도 문화예술계에서는 발코니 콘서트, 드라이브인 버스킹, 온라인 공연, 가상 전시, 웹기반 축제 등과 같이 물리적 제한에 저항하는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고립되고 소외되고 불안한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 새로운 성찰을 부여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본 원고에서는 코로나19가 문화예술분야에 미친 피해와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해볼 예정이다.

2. 문화예술분야의 피해

■ 코로나19 피해조사 결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산하 회원협회 및 연합회, 지회를 대상으로 3월에 수행한 조사결과¹⁾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취소·연기된 문화예술행사는 2,511건이며, 피해금액은 약 5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활동증명완료자를 대상으로 4월에 조사한 결과²⁾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예술활동이 취소·연기된 예술인은 87.4%이며, 일방적 계약해지(40.5%), 계약기간 축소(20%), 임금 미지급(14%), 기타(25.5%, 계약연장 거절 등) 등의 고용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데이터를 활용한 예술분야매출 피해 추정

예술분야의 경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데이터³⁾를 제외하고는 1년 내지 3년 단위의 조사통계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규모의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으로 본 원고에서는 구득 가능한 복수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먼저 각년도 문예연감의 월별/분기별 예술활동 현황 자료와 문화예술분야 신용카드 지출액 자료

표 1 | 공연 및 전시 분야매출액 피해 추정(2020.1~6월)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공연	전시
2017.1~6월	9,298	7,435
2018.1~6월	10,128	7,611
2019.1~6월(p)	11,032	7,791
2020.1~6월(p)	12,017	7,076
코로나 피해를 반영(p)	5,560	6,451
취소된 건수(p)	6,457	1,525
건당 매출액(백만원)	20.3	43.7
코로나19 피해금액(백만원)	82,258	66,598

주1) (p)는 추정치

주2) 2019년, 2020년의 공연 및 전시건수 추정치는 2017년, 2018년 문예연감의 월별 자료를 활용하여 전년 대비 증가율을 활용하여 추정(유료 및 무료 포함)

주3) 공연예술분야 코로나 피해를 반영 추정치는 2019년 대비 2020년 1~6.20 기간동안 '공연장, 극장' 업종의 신용카드 지출액 감소율(-49.6%)을 활용

주4) 시각예술분야 코로나 피해를 반영 추정치는 2019년 대비 2020년 1~6.20 기간동안 '화랑, 표구사' 업종의 신용카드 지출액 감소율(-17.2%)을 활용

주5) 취소된 건수 추정치 = 2020.1~6월(p) - 코로나 피해를 반영(p)

주6) 공연 건당 매출액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2019년 1~12월 공연건수와 매출액 자료를 활용

주7) 전시 건당 매출액 : 2019 미술시장실태조사의 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 미술관, 기타 전시공간의 연간 전시건수와 매출액(관람규모) 활용

주8) 코로나19 피해금액 = 취소된 건수 × 건당 매출액

1)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 조사는 2020.3.9.~3.12 동안 이메일과 팩스를 활용하여 이루어졌으며, 10개 회원협회, 16개 연합회, 140개 지회가 응답했다.

2) 문체부의 조사는 예술활동증명완료자 76,201명에 대해 2020.4.20.~4.26에 걸쳐 온라인설문으로 이루어졌으며, 24,330명이 응답했다.

3) 다만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데이터의 경우에도 2019년 6월부터 공연법에 따른 데이터 전송 의무화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다.

4) 신용카드 개인 이용금액을 시장 점유율을 활용하여 전체 시장 취급액으로 추정한 것으로, 이 중 '공연장, 극장' 업종과 '화랑, 표구사' 업종에 대한 신용카드 지출액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4)를 활용하여, 2020년 1월~6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공연·전시 건수를 추정하였다. 또한 공연예술통합전산망과 미술시장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연 및 전시의 건당 평균 매출액을 산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공연·전시 건수를 활용하여 피해금액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연예술분야는 823억원, 시각예술분야는 666억원으로 공연 및 시각예술분야에서 총 1,489억원의 매출액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 통계데이터를 활용한 예술분야 고용피해 추정

2019년 공연예술실태조사와 미술시장실태조사, 서비스업 조사의 연간 총지출, 인건비 비율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간 인건비를 구하고, 2020년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전년 동월 대비 고용감소율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피해를 추정한 결과 2020년 1월~6월 동안 공연예술분야 305억원, 시각예술분야 34억원으로 약 339억원의 고용피해(인건비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예술인들의 경우 사업체에 고용되기 보다는 프로젝트 단위 계약을 통한 프리랜서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고용피해를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8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중 프리랜서의 비율은 72.5%에 달하며, 월평균 예술활동수입은 약 107만원으로 나타난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기준으로 할 때, 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피해는 244억원, 예술인실태조사 모집단을 기준으로 할 경우 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피해는 572억원으로 추정된다.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연예술분야는 823억원, 시각예술분야는 1,489억원으로 공연 및 시각예술분야에서 총 976억원의 매출액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1월~6월 동안 공연예술분야 305억원, 시각예술분야 34억원으로 약 339억원의 고용피해(인건비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기준으로 할 때, 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피해는 244억원, 예술인실태조사 모집단을 기준으로 할 경우 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피해는 572억원으로 추정된다.

표 2 | 공연 및 전시 분야 고용 피해 추정(2020.1~6월) (단위: 백만원)

구분	연간 인건비	고용감소로 인한 연간 인건비 상실(p)	1~6월 고용피해(p)
공연시설	412,467	28,460	14,230
공연단체	471,771	32,552	16,276
소계	884,238	61,012	30,506
화랑	24,289	1,676	838
경매회사	11,140	769	385
아트페어	1,786	123	62
미술관	60,932	4,204	2,102
소계	98,147	6,772	3,386
합계	982,385	67,785	33,892

주1) 연간 인건비 = 연간 총지출 × 인건비 비율(%)

주2) 총지출 : 2019 공연예술실태조사, 2019 미술시장실태조사

주3) 인건비 비율 : 2019 미술시장실태조사, 2018년 기준 서비스업 조사

주4) 고용감소로 인한 연간 인건비 상실(p) : 사업체노동력조사의 2019년 대비 2020년 2월~4월의 고용감소율 평균값 활용(전체 종사자 기준 전년 대비 6.9% 감소)

주5) 코로나19 고용피해(p) = (고용감소로 인한 연간 인건비 상실(p) / 12개월) × 6개월

표 3 | 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 피해 추정(2020.1~6월)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예술인 수	월평균 예술활동수입 상실분(p)	1~6월 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피해(p)
예술인실태조사 모집단 (2018 기준)	178,540	9,534	57,206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수 (2020.4.21. 기준)	76,201	4,069	24,416

주1) 월평균 예술활동수입 상실분(p) = 예술인의 수 × 프리랜서 예술인의 비율(72.5%) × 월평균 예술활동수입(107만원) × 고용감소율(6.9%)

주2) 1~6월 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피해(p) = 월평균 예술활동수입 상실분(p) × 6개월

한편 공연이나 전시와 같은 문화예술행사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왔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그 피해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연이나 전시와 같은 문화예술행사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왔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그 피해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온라인·비대면 콘텐츠의 부상

■ 랜선 공연·전시 및 홈 루덴스(HomeLudens) 문화 확산

코로나19를 계기로 향후 비대면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이 확대되고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예술적 경험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현장성'과 '유일성'이라는 점에서 비대면 콘텐츠는 기존 오프라인 예술의 대체재가 아니라 '또 하나의 보완재'라는 점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제작비용의 문제로 일정 수준 자본력을 갖춘 콘텐츠만 생산될 수 있다는 점, 플랫폼의 지배력 확대 문제, 무료 스트리밍으로 인한 문제, 저작권 문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침해 가능성과 같이 비대면 콘텐츠의 확산이 내포하고 있는 한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와 방역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집에서 즐기는 비대면 공연·전시가 크게 증가했다. 국내에서도 국공립예술기관·단체를 중심으로 공연 스트리밍 붐이 일었고, BTS나 SM의 온라인 콘서트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조회 수와 수입을 거두기도 했다.

이러한 비대면 콘텐츠는 시간적·공간적·경제적 한계를 극복하고 무대와 관객간의 거리를 축소하여 생생한 관람을 가능케 하며, 유통 플랫폼의 확장을 통해 새로운 관객기반을 형성하여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반면 비대면 콘텐츠의 부상에 대한 비판론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기존의 오프라인 예술이 가지는 현장성, 즉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서 예술인과 관객이 만나 만들어내는 특별한 감동과 경험이 퇴색되며, 몰입이 어렵고, 오프라인 관람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 어느 정도 완성도 있는 영상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제작비용이 소요되는데 영세한 예술단체의 경우 이러한 제작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대중성이 강한 콘서트와 뮤지컬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초예술의 경우 유료화를 통한 수익 창출 가능성이 낮다는 점,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의 심화로 취약계층의 문화접근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된다.

판단컨대, 코로나19의 확산은 그간 우리가 멀게만 느꼈던 4차 산업혁명으로의 여정을 성큼 앞

당기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기술혁신이 문화예술계에 빛과 함께 그림자라는 양면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바 있듯이, 비대면 콘텐츠의 확산이 초래할 명암을 명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향후 비대면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이 확대되고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예술적 경험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현장성'과 '유일성'이라는 점에서 비대면 콘텐츠는 기존 오프라인 예술의 대체재가 아니라 '또 하나의 보완재'라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제작비용의 문제로 일정 수준 자본력을 갖춘 콘텐츠만 생산될 수 있다는 점, 플랫폼의 지배력 확대 문제, 무료 스트리밍으로 인한 문제, 저작권 문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침해 가능성과 같이 비대면 콘텐츠의 확산이 내포하고 있는 한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4. 문화예술의 가치 재조명

■ 위로와 희망, 연대와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의 역할 재조명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단절은 우리 사회에 '코로나 블루'로 명명되는 불안과 우울, 고립을 가져왔다.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 연대의 손길을 건넨 것은 다름 아닌 문화예술이었다. 이탈리아에서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Andra tutto bene)!'라는 메시지를 담은 발코니 콘서트가 플래시 몹으로 이루어졌고, 도이치 그라모폰이 기획한 '세계 피아노의 날 기념 가상 콘서트'에서는 조성진 등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이 각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단절은 우리 사회에 '코로나 블루'로 명명되는 불안과 우울, 고립을 가져왔다.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 연대의 손길을 건넨 것은 다름 아닌 문화예술이었다.

[그림 1] 아담 이스펜디야르의 창문초상화



출처: 성효선(2020), 새로운 교감의 방식을 찾아서 - 언택트 시대, 길을 찾는 예술, Arte 365 (2020.6.1.)

의 집과 연습실에서 연주를 들려주며 우리가 혼자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었다. 영국의 사진작가 아담 이스펜디야르는 자전거를 타고 지원자들의 거주지로 가 창문 프레임 너머 그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는 ‘창문 초상화(window portraits)’를 통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를 기록하고 이야기로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⁵⁾

국내에서도 클래식 랜선 라이브 콘서트인 ‘방구석클래식’과 소규모 살롱 콘서트인 ‘방구석탈출클래식’이 코로나로 지친 관객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했고, ‘비긴 어게인 코리아’에서는 드라이브 인 버스킹, 베란다 버스킹 등을 통해 음악으

로 하나 되고 치유되는 순간을 선보였다.

춘천에서는 ‘온라인 100인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전국의 문화예술인들이 온라인 화상채팅으로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역의 피해사례와 극복방법을 나누었으며, 코로나 확산 우려로 취소된 춘천마임축제의 경우 일상공간 100곳을 무대로 만드는 ‘춘천마임 백신 프로젝트’로 대체하고, 물놀이 튜브 좌석, 방역텐트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거리두기 좌석제를 통해 안전하게 관객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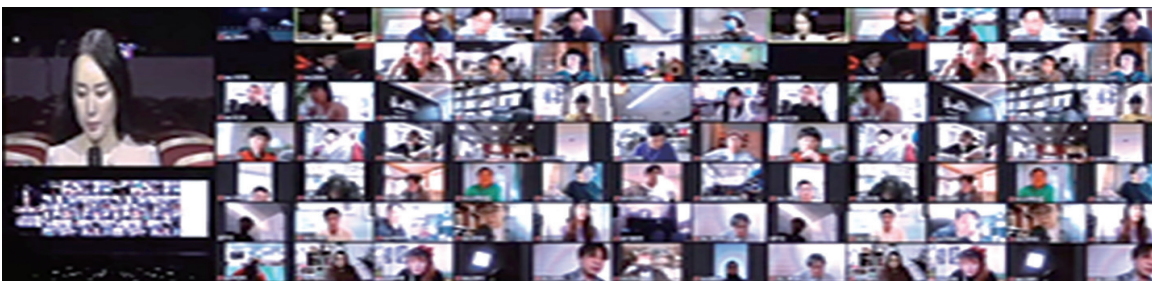
문화예술이 가지는 가치는 동서고금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예술이 가지는 위로와 공감, 치유, 연대와 성찰의 힘’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된 것이다.

5. 나가며

2020년 7월 7일 기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천백만명을, 사망자는 53만명을 넘어섰다. 국내에서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7월 7일 현재 누적 확진자는 13,181명, 격리대상자는 982명, 사망자는 285명에 이른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긴급재난지원금

[그림 2] 춘천 온라인 100인 라운드테이블 장면



출처: 유튜브 영상 캡처(<https://youtu.be/yCNkYKt-iyQ>)

5) 성효선(2020), 새로운 교감의 방식을 찾아서 - 언택트 시대, 길을 찾는 예술, Arte 365 (2020.6.1.)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확산이 그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이 지속되는 한 문화예술계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문화예술의 근간을 위협하게 되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을 제공하고, 인건비·활동비의 우선적 지급을 통해 이 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닫혀있는 공연장, 미술관, 도서관 등을 다시 열고 좌석간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공연과 전시, 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다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 하여도 문화예술 콘텐츠의 가장 핵심적인 유통 플랫폼은 문화시설이기 때문이다.

을 포함하여 3차에 걸친 추경 편성을 통해 정책패키지를 발표했으며, 문체부 차원에서도 두 차례에 걸친 긴급 지원방안 발표, 기금운용계획 추가 편성, 3차 추경으로 3,469억원을 편성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확산이 그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이 지속되는 한 문화예술계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문화예술의 근간을 위협하게 되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을 제공하고, 인건비·활동비의 우선적 지급을 통해 이 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온라인·비대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설과 장비, 유통 플랫폼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작비용이나 시설·장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이 공간이나 시설·장비를 대관·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제작에 필요한 촬영, 조명, 음향 등 기술교육과 저작권교육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정보제공 및 전문인력을 연계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닫혀있는 공연장, 미술관, 도서관 등을 다시 열고 좌석간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공연과 전시, 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다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 하여도 문화예술 콘텐츠의 가장 핵심적인 유통 플랫폼은 문화시설이기 때문이다.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의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안전하게 문화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절실하며, 보완재에 불과한 언택트(untact)에 대한 지나

친 강조로 ‘온택트(ontact) 문화예술의 중요성과 가치’가 간과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은 언제든지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위기관리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취해질 필요가 있다. 먼저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의 피해 상황 파악, 지원대책의 수립과 전달, 이를 위한 소통체계와 환류체계 등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예술재난보험 도입이나 문화재난기금의 조성, 예술인기본소득, 예술인 공제회 설립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혹자가 이야기한 바 있듯, “위기의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문화예술은 더욱 필요하다.”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문화예술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

*Now, more than ever, we need culture.
The show must go on.*

참고자료

- IMF(2020),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ne2020,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ILO(2020), ILO Monitor: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Fifth edition,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2019), 2019 미술시장실태조사 (2018년 기준).
- 성효선(2020), 새로운 교감의 방식을 찾아서 - 언택트 시대, 길을 찾는 예술, Arte 365 (2020.6.1.)
- 양혜원(2020), 예술전환의 분기점, 코로나19가 예술분야에 미친 영향과 전망, 2025 서울예술인플랜 수립 1차 토론회 자료집.
- 춘천문화재단(2020), 2020봄 나의 안부. 춘천문화매거진 22호. p.48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코로나19 전후 문화예술 관련 산업 실태조사 지출액 분석(2020.6.29.)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9), 2018 문예연감(2017년 기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0), 2019 문예연감(2018년 기준)
- 유튜브 영상 : 봄의 도시 춘천, 전국에 안부를 묻다-온라인 100인 라운드 테이블
- <https://youtu.be/yCNkYKt-iyQ>